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준비하면서 불안을 잊고 결속력을 다진다. 기우제의 한 장면. <부키 제공>

# 방구석 문화 여행자를 위한 세계문화 보고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  
 한민 지음

1996년 독일의 세계적인 석학 위르겐 하버마스가 한국에 왔을 때의 일이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한국의 사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버마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하버마스의 말은 간단하고도 명료했다. ‘당신들 나라 일은 당신들이 잘 알지 않느냐’는 뜻이었다.

문화권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그들의 숨은 마음이 궁금할 때가 있다. 겉으로는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지도 그 이면에 깔린 특유의 원인이기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미국인은 왜 슈퍼맨을 좋아하고, 중국인은 관우를 좋아하는지 말이다. 물론 흥겨움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속마음을 타 문화권의 사람들이 알 리도 만무하다.

비단 영웅뿐 아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짐작하는 대상은 그 시대 사람들의 특유의 심리가 투영돼 있다. 그들의 심리를 알면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하는 의문이 이해가 된다.

‘멀고도 낯선 세계의 문화와 이방인의 마음’을 조명

천개의 나라에는 천개의 문화가 있듯이  
 우리와 문화 다른 사람 미개인 아니듯...  
 낯선 세계 문화와 이방인의 마음 조명

한 책이 나왔다. 우송대학교 교양 교육원 한민 교수가 펴낸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는 세계와 사람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방구석 문화여행자를 위한 58가지 문화 패키지 여행’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에는 진짜 사람 공부의 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슈퍼맨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저자는 “1938년 미국의 슈퍼맨은 경제공황에 시달리던 대다수 미국인들의 욕망이 표출된 것”이라며 “미국 사람들이 슈퍼맨이라는 가상의 영웅의 활약을 통해 억눌렸던 욕구를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인들이 82근이나 나가는 ‘청룡인월도’를 휘두르는 관우를 좋아하는 이유도 분석한다. 청룡인월도는 송나라(960~1279) 때 등장했기에 삼국시대(2세기 후반~3세기) 장수가 사용했을 리가 없는데 말이다. 그것은 ‘그 정도’는 돼야 관우의 위용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각의 나라에는 저마다 특유의 문화가 있다. 백 개의 나라에는 백 개의 문화가, 천 개의 나라에는 천 개의 문화가 있듯이.

일례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에는 차이가 있다. 연인들에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커플은 하루이틀이었던 데 반해 일본커플은 2주일 이상도 참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보편적으로 한국인들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안 되면 사랑

하지 않는다 생각한다. 이에 반해 일본인들은 사랑하는 사이임을 의심하지 않는데, 이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메이와쿠’라는 문화와 관련이 있다. 보고 싶다고 아무 때나 연락하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연인에게 폐가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문화적 현상이 구성원들의 생존을 위해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들여다본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구성원들의 불안을 낮추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열대우림에 사는 야노마미족에게 여성을 때리는 문화가 있는 것도 기능적 관점과 연관이 있다. 적의 침입이 잦았던 야노마미 남성들은 용맹한 전사가 돼야 했다. 그로인해 여성들은 학대 받을지언정 남성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존재로 받들었다.

“여성 인류학자가 야노마미족을 찾았을 때, 야노마미족 여성들은 인류학자의 몸에 멍 하나 상처 하나 없는 것을 여기며 ‘당신 남편은 대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보나’고 말했다는 군요.”

이렇듯 저자는 문화를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준거로 인식한다.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애기다. “문화심리학은 나와 다른 존재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을 제공한다. 우리와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미개인이 아니고 아반인이 아니듯이,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적이나 별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키·1만6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브라이언 크리스천·툰 그리핀스 지음 ‘알고리즘 인생을 계산하다’

“집을 사려고 할 때, 몇 채의 집을 본 후에 계약하는 것이 좋을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최선일까? 더 나은 사람이 어디선가 날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인간은 누구나 제약된 공간에서 살고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문제에 휘둘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인간에게만 한정돼 있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컴퓨터도 똑같은 제약에 속박돼 있다. 가령 이런 것들이다. 프로세서가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과제를 수행하려면 어떤 식으로 ‘주의(intention)’를 배분해야 할까? 과제 사이의 전환은 어떻게 하고, 과제를 얼마나 많이 떠맡아야 할까?

축망받는 컴퓨터공학자이자 철학자인 브라이언 크리스천과 UC버클리대학교 인지심리학 교수인 톰 그리핀스가 펴낸 ‘알고리즘, 인생을 계산하다’는 컴퓨터과학의 알고리즘을 우리의 선택 문제에 대입한다. 저자들은 연산의 충돌 문제, 집중, 타이밍 등을 고려해 만들어진 컴퓨터과학의 알고리즘 구조는 인간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최적의 선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해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저자들은 “알고리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며 컴퓨터과학의 힘을 믿어보라고 조언한다.

책에서 소개하는 11가지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최적 멈춤, 탐색/이용, 정렬하기, 캐싱, 일정계획, 베이스 규칙, 과적합, 완화, 무작위성, 네트워크, 게임이론이 그것이다. <정림출판·2만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존 L. 잉그럼 지음·김지연 옮김 ‘미생물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미생물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함께 지내는 대상이다. 들이마시는 한 모금의 공기도 미생물 덕분에 만들어졌다. 생선, 김치 등 자주 먹는 음식부터 심지어 우유와 물에도 미생물은 존재한다. 미생물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일상은 미생물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생물에 대한 사소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룬 책이 출간됐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미생물학과 명예교수이자 미국 미생물학회 회장을 지낸 존 L. 잉그럼이 펴낸 ‘미생물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은 미생물의 세계를 총괄하게 들여다본다.

미생물은 수십억 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다. 인류보다 앞선 고대 식물과 동물조차도 미생물의 4분의 1 정도 살았으니 인류 역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저자는 미생물이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미생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찾아달 뿐이다. 옛날이야기나 고대 신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예로스톤 국립공원의 온천과 호주 카리지니 국립공원의 붉은 절벽까지 아우른다.

저자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은 미생물의 이중성이다. 일례로 스페인의 모든 투우장 길에는 ‘플레밍’이라는 이름을 지닌 길이 있다. 플레밍이 우연히 발견한 항생제인 페니실린 덕분에 투우사들이 목숨을 건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백신과 미생물과의 전쟁은 끝이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백신과 약은 미생물에서 온다. <이케이북·1만95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엘리자베스 블랙번·엘리사 에펠 지음, 이한음 옮김 ‘늙지 않는 비밀’

100세 시대에 들어선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할 바란다.

‘늙지 않는 비밀’은 사람들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이 긴 삶을 원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몸속 노화시켜 ‘텔로미어’에 있다고 말한다.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것이 항노화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텔로미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인 2009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건강심리학자 엘리사 에펠은 이 책을 통해 더 젊게 오래 사는 텔로미어 효과를 설명한다.

인간의 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는 이 책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개념들을 통해 앞으로 더 건강하면서 충족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줄 이야기를 담고 있다. 텔로미어 생물학의 기초적인 사항부터 텔로미어가 질병, 건강, 우리의 사고방식, 더 나아가 가족 및 공동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고, 우리가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인류의 오랜 열망인 불로장생의 열쇠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운동, 수면, 사고 습관 등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더불어 신체뿐만 아니라 감정 및 사고가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텔로미어를 돕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며 탄력적 사고, 자기 연민, 사고 인지 등 텔로미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 습관들을 익힐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알에이치코리아·1만7000원>

/ 전은혜기자 ej6621@kwangju.co.kr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면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시공전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복포여수순천광양 (061)284-0485 (061)683-0485 (061)726-0482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